

OPINION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기고

AI와 만난 농업 미래를 바꾸다! 국제농업박람회

박관수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농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이 여전히 농업을 '전통적 산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농업은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 기술과 결합한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 농업이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2025국제농업박람회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5개국 38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약 40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 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농업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하는 실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AI와 로봇이 결합한 스마트 농업이다. AI 기반 농업 로봇 및 자율주행 농기계, 생육 자동 측정기 및 스마트팜 솔루션 등이 대거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농식품 혁신상을 수상한 K-기업 8곳이 참가해 AI 기반 농업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이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AI가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병충해를 예측하며, 최적의 수확 시점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농업은 1차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공·유통·소비까지 연결된 산업적 가치 사슬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업의 산업화 가능성을 조명하려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 작목(비파, 유자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곤충 가공식품 전시가 진행되며, K-커피 홍보관에서는 국산 커피 산업화 모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 혁신의 중심에 있는 젊은 창업가와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창업마켓'에서는 청년 농부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농기업 스케일업 투자 IR 포럼'을 통해 창업 기업들이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혁신적인 산업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15개국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상담회는 총 2800억 원 규모

의 구매·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등 글로벌 농업 강국들이 자국의 최신 농업 기술을 전시하며, 한국 농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나만의 미래 농장 그리기', 농기계 RC카 체험 등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 관람객들은 테라리움 만들기, 드론 추측 체험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업산물패션쇼, 마당놀이, 월드새콤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농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나주밤상' 브랜드를 활용한 남도음식관에서는 전남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박람회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다. 이제 AI, 데이터, 스마트기술과 융합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과 AI의 융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혁신적인 농업 모델, 한국 농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현장에서 농업의 혁신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올 10월, 전남 나주에서 농업의 혁신을 경험하고, 농업의 미래를 확인해보자.

사설

전남도 '1000원 여객선' 섬 정주여건 개선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1000원 여객선'이 인기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이 556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

매달 12만64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운임 중 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남도가 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 것은 섬이 많은 지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전남에는 전국 섬의 65%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있고 이 중 유인도 274곳에 약 15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여객선은 병원 진료, 자녀 교육, 생필품 구매 등 일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필수 교통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여객선 평균 운임은 km당 387.3원으로 항공기(214.5원), 고속철도(142.7원), 시외버스(131.8원)보다도 비싸 주민 부담이 컸다. 결국 전남도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4년도 채 안됐지만 '1000원 뱃살'의 도입으로 섬 주민들은 이전보다 자유롭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고 문화생활과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도입초기인 2021년 10억원에 불과하던 지원사업 예산도 2022년 30억원, 2023년 36억원, 2024년과 올해는 43억원까지 늘어났다.

뿐만 아니다. 전남도는 섬 지역 택배 추가 비용 지원(8억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0억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2억원) 등 섬 지역 생활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차량을 함께 여객선에 싣는 경우에도 운임을 지원하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에는 별도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남도, 인천시 등 다른 지역 광역 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0원 여객선'이 이제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닌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이 된 것이다.

기고

혼자가 아닌 함께, 더 따뜻한 광주 동구를

김정애

광주 동구 복지정책과장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극 배우 손승은 율해 81세로 스스로 본인의 사진과 물건 등을 정리하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웃으면서 자신의 납골당을 준비하고 '우리집'이라 표현하며 가끔 들려본다고 이야기하는 손승은 열골은 소녀처럼 해맑았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웰다잉(Well-Dying)'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광주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구형 유품 정리-나비(나눔과 비움) 활동가'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 나의 유품을 정리하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나비활동가'는 지역의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동구의 유품정리사'다.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나비활동가'는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과 유품 정리, 장례학 개론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건강한 삶의 마무리 준비를 돕는 활동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동구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집안 구성요소 쪼개어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속에 담긴 내 삶의 회로예약을 회고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지를 생각하게 되는 인문도시 동구다운 깊은 철학이 담긴 사업이다. 나비활동가로 활동 중인 한 주민은 고독사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을 자처하

고 나서며 '잘 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미국의 사회학자 모리 슈워츠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

지역 사회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복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사회적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취약계층의 고독사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동구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1인 가구 비율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분포한다는 통계를 보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물론 1인 가구라고 하여 모두가 고립 위기 가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지만 개인주의 성향과 사회적 고립을 택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젊고 낙후된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망 후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에서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 과정과 이후의 일들은 철저히 사회적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고독사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의 관계망이 약해진 결과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동구는 이미 지난 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40세 이상 중·장년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고독사 위험군을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중·고위험군 1830명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안부 서비스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설문 항목에서 중·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부문기 및 관심 가져주기'였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 고독사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구는 주민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힘을 모으고 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동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동구 불교협의회, 원불교 광주교당 4대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4대 종단 복지활동가'를 양성해 고립위험가구의 안부를 묻고 이웃의 위기가구 징후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정보취약가구의 정서지원을 위한 '행복신론 배달사업', 돌봄이웃의 소소한 짐수리를 주민 자원봉사로 수리해 주는 '우리동네 복지홍반장', 한편 전례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징후를 감시하는 SI안부전환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독사 없는 사회, 존엄한 삶과 죽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노쇼 사기 잇따라...근절대책 마련해야

지역 자영업자들이 두번 울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족이나 장사가 안돼 힘든데 '노쇼(No-show)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어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지역에서 집계된 기관 사칭 피싱·노쇼 의심 피해 신고 건수는 광주 47건·전남 9건 등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도사락 포장 등 대량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기범은 단체 주문 이후 음식점에 또 다시 연락해 전부식량, 방탄조끼 등 다른 물건을 대리구매해 오면 그 값까지 지불하겠다고, 대리구매 비용을 선입금으로 받은 뒤 잠적한다고 한다.

특히 위조된 공무원과 공무원증,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대포폰·대포통장으로 대리구매 비용을 받아 자금 추적까지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날 들어 광주에서만 30여건이 넘는 노쇼피해 신고 접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규모 또한 360만원에서 최대 6600만원이나 된다.

실제로 지난 23일에는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지역 정어 전문 식당에 식사를 주문했으나 식당 주인이 소방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다행히 피해를 예방했다.

전국 소재 식당을 상대로 수심자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명 군부대 관계자 사칭범도 최근 광주의 한 식당에 전화해 음식을 대량 예약 주문한 뒤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 받았다고 하는 사기를 벌였다.

지난달 13일에는 영암의 한 공구 업체가 '군부대 공구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1억6000여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쇼 피해 사기 특별정보를 발령하고 피해 수사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단체주문 후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등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강력한 수사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취재수첩

광주의 역사 담긴 충장·금남로를 걸어보자

송태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지난 25~26일 광주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평소에도 불금(불타는 금요일), 주말에 여가·문화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이날 특별한 행사가 열려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특별한 행사는 바로 '광주 국가유신야행'이다. 광주 국가유신야행은 5·18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율동동 석실고분,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유

성유허 등 국가유신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경, 역사 투어, 체험, 전시, 공연, 먹거리, 장터, 숙박 등 8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에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중 광주유성유하는 조선시대의 광주유성이 있었던 곳으로 1979년 간행된 '광주시사'에 따르면 일본군이 한말 의병 항쟁을 탄압하기 시작한 1908년부터 1918년 사이에 철거됐다고 기록했다.

철거된 자리에 도로가 개설돼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됐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조성하면서 2006~2007년 발굴 조사를 했고, 성들을 해체 보 관해 오다가 2014년 읍성의 일부 구간을 이전 복원했다.

충장골목야행(야경편: 빛나는 충장)은 26일 광주 금

남로·충장로의 야경을 참가자 18명에게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마을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회경루를 시작으로 금남공원, 어린이미디어박물관, 5·18민주광장 빛의 음악분수, 빛의 읍성, 점일빌딩245 등을 다니며 야경을 즐겼다.

광주 충장로·금남로는 잘 알려졌지만 서울 경복궁, 전주 경기전, 나주 금성관 등 타지역과 비교하면 광주 국가유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문화·자연·무형유산발목 지속 가능하고 국가유산과 역사를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광주 국가유산야행, 충장골목야행이 열렸다는 점은 뜻깊다.

그 가치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역사 서적 읽기, 박물관 방문, 문화유적지 탐방은 일상생활이 바쁜 현대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광주 역사·문화가 숨 쉬는 충장로·금남로를 걸어보며 백제시대부터 1980년 5월까지의 국가유산, 역사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